

보길도 뽕쪽산 '신선이 하늘 올라가는 형'

■ 해상왕국 완도의 대혈들 ②

동이칠선(東夷七仙)이 백두대간 영산의 산신이 된 것을 기념해 봉래산(지리산) 산신이 각 산신들을 초대하였다. 이 때 한라산 산신도 초대되어 보길도 앞을 지나가는데, 뽕쪽산(甯竹山·197m)이 마치 대나무 하나를 세워놓은 것처럼 기묘하여 그 위에 내려가서 살펴본즉, 남으로는 추자도와 제주도가 코앞에 있고, 북으로는 기지창검과 화계(華蓋)를 높이 세운 달마산이 내조(來朝)하여 장관을 이루었다.

혼자 보기에 너무 아까워 월출산 산신을 불러 함께 놀다가 지리산 산신의 초대마저 망각속에 지워버리고 바둑으로 해를 넘기고 밤이면 망월봉에 올라 달을 희롱하면서 살다가 옥황상제의 부름으로 그 곳을 떠나게 되었다. 이 때 인간에게 줄 선물로 보길도에 사람이 쓸 수 있는 대혈로 10대 길지를 만들고 섬 이름을 작렬의 이치를 따라 보길이라 부르게 하였다고 한다.

속구산, 부와 권력 연계될 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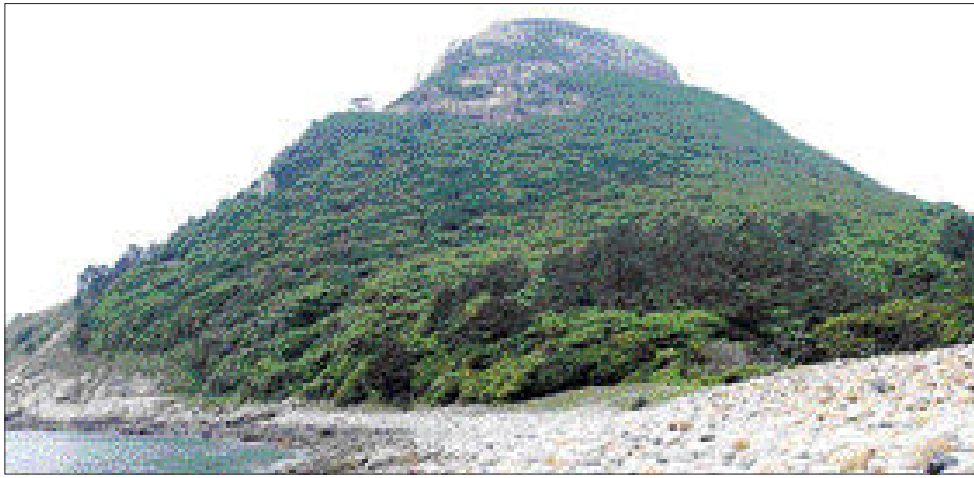
먼저 가장 큰 혈로는 역시 뽕쪽산에 신선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의 노선상천형(老仙上天形)이 있는데 제주도 한라산이 안산이다. 그 뒤편에는 옥동패벽(玉燈卦壁)처럼 생긴 선인망월형(仙人望月形)이 있고, 보옥리 뒷산에 신선이 목에 푸른 옥을 걸고 있는 모습의 선인패옥형(仙人佩玉形)이 석중토혈(石中土穴)로 맺었다.

그 오른쪽에 선인대좌형(仙人大坐形)은 간좌 곤향으로 혈이 배꼽에 맺었는데 한결같이 무관의 제왕으로 동방을 호령할 수 있는 준결이 태어날 땅이다. 또 선창리 바닷가에 소위 바다 게가 구슬을 가지고 노는 형상의 해와농주형(蟹臥弄珠形)이 삼태안(三台案)을 하고 있는데 이를 얻어 쓸 경우 온 세상을 흔드는 성약가가 태어나 그 이름을 만세에 빛날 것이다.

예부터 작은 명당이 많기로 소문난 정자리에 는 집을 짓고 살만한 집터가 많이 있으며, 숲 섬에는 물을 피해 작지만 금쪽같은 음택 하나가

전라도 풍수가 바뀌고 있다

♣ 땅의 숨결을 따라 <26>



보길도에서 가장 큰 혈처가 있는 뽕쪽산(甯竹山).



고산 윤선도의 '세연정'

숨어있다. 속구산에는 늪은 개 한마리가 앞쪽의 '호랑이가 죽어서 바위가 되었다'는 소위 사호암(死虎岩)을 살펴다가 고개를 남쪽으로 돌리고 이내 잠이 들어버린 형국의 면구형(眠狗形)

이 산정에 혈이 맺혀 있다. 이 곳은 만석꾼의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권력을 얻게 되는, 소위 선부후귀(先富後貴)하는 땅이다.

고산 윤선도의 유적지인 세연정안에는 없

린 용이 물장구를 치고 노는 형상에 입좌병향(壬坐丙向)의 북룡회수형이 아직까지 살아있다. 특히 장사도(長蛇島)가 수구나성(水口羅星)으로 혈을 응위하고 있어서 동서로 열린 일중시(日中示)와 함께 명당의 화려함을 더해주는 곳이다.

부용리에 있는 화신형은 마치 활짝 핀 꽃잎속의 씨방에 앉아 있는 것처럼 평안하고 사방에 펼쳐진 꽃잎이 화려하게 그지없다. 탐랑(貪狼), 낙맥(落脈)의 유두혈(乳頭穴)을 사신팔장(四神八將)이 정위처에서 혈궁을 지키고 있으니 소위 사대부혈이다.

따라서 이곳은 아무나 쓸 수 있는 땅이 아니며 평소에도 크게 덕을 배운 학자나 고위 관료가 들어가야 하며, 일반 소시민이 들어가면 웅상팔살(龍上八煞)과는 상관없이 발복을 못하는 땅이다. 그러나 제 임자가 들어가면 장관 정도의 관료는 대대로 끊이지 않고 나올 수 있는 대명당이다.

세연정, 용이 물장구 치고 노는 형

예송리 너머 예약도앞에 '애닭기미'라는 곳이 있다. 조선 중기 해남이 낳은 국풍 이의신(李懿信)이 인간지보화(人間之寶華)로 알려진 보길도의 10대혈을 찾으러 갔을 때 예송리 앞에서 '만약에 이곳이 예약도와 연결이 되었으면 천하의 대명당이 되었을 텐데 예석하다'라고 탄식을 하면서 돌아갔다고 해서 생긴 지명이다.

이상이 보길도의 10대 혈로 일컬어지는 대명당들이지만 아직까지 단 한곳도 묘를 쓴 곳은 없다.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바다 가운데에 웅장한 기상으로 힘차게 솟아있으면서도 아위지 않고, 기묘묘하면서 후덕하여 풍만하기 그지없는 산세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생성해 내는 그 맑고 따뜻한 기운과 보석처럼 교귀하는 풍광에 보는 사람의 넋이 환출해지는 땅, 보길도는 명당중의 명당임에 틀림없다.

/전중주 호남대 교수·한국 풍수지리학회 학술연구위원

■ 전라도 역사이야기

- '천행(天幸)의 승전' 명량해전

조류이용 日전함 30척 침몰 '풍전등화' 조선 국운 살려내

1597년 3월 4일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이 투옥된 이후 전란은 더욱 치열해져 갔다. 신임 삼도수군통제사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7월 중순 칠천량(七千兩)의 해전에서 참담한 참패를 당하여 조선은 다시금 최악의 위기상황을 맞게 되었다. 칠천량 해전의 참패를 보고 받은 선조는 병조판서 이항복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8월 3일에 이순신을 3도수군통제사로 전격 재임명하여, 전란을 수습하도록 하였다.

이명을 받은 이순신은 곧바로 군관 9명과 군사 6명만을 대동하고서 출발하여 8월 8일에 순천에 당도하였다. 순천에서 정예병 60여명을 모아 무장시키고, 14일에 이웃 고을인 보성에 이르러 120명으로 전력을 보강하였다. 그리고 18일에 장흥 회령포(會寧浦, 지금의 장흥군 대덕읍 회진)에 이르러 9척의 전함을 수습하고, 여기에서 선편으로 해남반도를 돌아 29일에 진도의 벽파진에 이르러 전라우수사 김억추(金億秋)에게 명하여 전선을 수습 정비케 하여 3척의 전함을 보내어 도합 12척의 전함을 거느리게 되었다. 여기에 가까운 고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100여 척의 피난선을 이끌고 이순신에게 운집하여 전력 보강에 도움을 주었다.



진도대교가 위용을 자랑하는 명량(울돌목) 전경

칠천량 해전으로 조선의 수군을 거의 붕괴시킨 것으로 판단한 일본군은, 우선 육로로 이전 임진왜란 때엔 전혀 발을 들여놓지 못했던 전라도 점령에 전력투구하여, 전라도의 최고 요충지인 남원 공략에 공을 기울였다. 덕분에 해상 진출을 위한 일본 수군의 움직임은 비교적 늦은 8월 하순부터 시작되었다. 일본군이 호남 점령을 위해 육전에 전념하느라 해상 공략을 비교적 소홀히 했던 것이다. 이는 이순신이 진도에서 전라도의 수군을 모아 재정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한 요인이 되었다.

일본군이 남해안 일대를 침범하고 서해로 진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공세를 취하기 시작한 것은 9월 중순이었다. 이 때 일본선 200여 척이 해남 아란포에 당도했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이순신은 9월 15일에 벽파진에 설치한 진(鎭)을 우수영으로 옮기고, 명량(울돌목)의 급조류를 활용한 작전 구상에 들어갔다. 과연 9월 16일 아침에 133척의 왜선은 아란포를 떠나 순조(順潮)의 흐름을 타고 명량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해 왔다. 기회를 엿보던 조선 수군은 순조가 역조(逆潮)로 바뀌면서 물살이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총공격을 감행하여 순식간에 30여 척을 침몰시키는 승리를 이끌어냈다. 이것이 유명한 명량해전이다.

명량해전은 이순신이 '천행(天幸)'이라 표현했듯이 절대적 열세를 극복하고 승리를 거둔 기적의 해전이었으며, 풍전등화 꺼져가던 조선의 불씨를 살려낸 구국의 해전이었다. 우리의 해전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전투로 기록될 것이었다. <글> /경봉릉 목포대 교수

■ 전라도 방언 (25)

"징허게 말도 안 듣네"

전라도 말에서는 '징하다/징상스럽다'는 말이 잘 쓰인다. "이 징한 년아. / 워해, 징상스런 것들도 다 있네"처럼. 그런데도 '징하다'는 '표준국어사전'에도 올라 있지 않은 대신 '징그럽다'가 있을 뿐이고, '징상스럽다'를 '징그럽다'의 전담 방언이라고 풀이하였다. '징그럽다'는 물론 방언에도 쓰이거나 '보기나 만지기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흉하거나 끔찍하다'

는 뜻으로서, 한자어 醜(미워할증)에서 파생된 말이고, '징상스럽다'도 역시 한자어 증상(瘡狀)에 '-스럽다'가 붙은 형용사다. 한편 '징하다'를 장흥·완도·진도 등에서는 '징합다/독합다'와 같이 '-하다'가 '-합다'로 바뀐 점이 특이하다. 그런데 위에 예시한 '징하다, 징합다, 징상스럽다'는 말이 전남 방언에서는 상황과 문맥에 따라 사전

의 풀이와는 다른 의미를 띄는 경우가 있다. 흔히 "전남 사람들은 징한 기질이 있다"고 할 때의 '징하다'는 어떤 일에 '끈기가 있다, 끈질기다'는 뜻이 숨어 있지 않은가. 또 '징그럽다'는 말속에는 인간의 부정적 혐오감이 깔려 있지만, 전남 방언에서는 긍정적인 표현에도 두루 쓰인다. "징허게/징그럽게(도) 맛있다, 멋지다"와 같은 말이 그렇다. /이돈주 전남대 명예교수

■ 남도 야생화

- 금낭화



양귀비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식물로 깊은 산 초원에서 자라며, 키는 40~60cm 정도다. 전국에 걸쳐 분포하며 개화 시기는 보통 5~7월경이다. 꽃이 아름답고 기르기가 쉽기 때문에 정원과 화분에 관상용으로 많이 재배하는 야생화이지만 유독성 식물이기도 하다. /리규채·생태 사진가



2005년도 大洲建設(株) 우수협력업체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고려산업(주)	대우건설	신한건설	대우건설
대우건설(주)	대우건설	대우건설(주)	대우건설
대우건설(주)	대우건설	대우건설(주)	대우건설
대우건설(주)	대우건설	대우건설(주)	대우건설

대우건설